



동반 성장

긴밀한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

SK에너지는 중소

협력사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소중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사에

대한 단기적, 시혜적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상생협력의

추진 원칙입니다.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과

공정한 협력사 관리를

실천함으로써 서로

원-원하는 동반성장을

이뤄가겠습니다.

•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인재 육성 지원 협력사의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지원에 중점을 두고 SK상생아카데미 프로그램과 현장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K상생아카데미는 협력사 CEO와 핵심 리더를 대상으로 한 상생 CEO 세미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상생 MDP(Management Development Program),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100여 개의 실무과정 e-learning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0년에는 상생 CEO 세미나에 총 220명, 상생 MDP 에 총 23개 사가 참여했으며, e-learning에는 총 525개사에서 1,130명이 마케팅, 재무, 기술 등의 온라인 실무과정을 수강하였습니다. 현장 기술 교육은 울산CLX와 인천CLX, LiBS 생산 공장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울산CLX에서는 주요 협력사 사장단 협의회를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인천CLX에서는 상주 협력사 사장단 간담회를 분기마다 1회씩 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개선 우수제안 평가·포상·교육과 협력사 관리자 작업표준 교육, 안전환경보건 외부 전문가 초빙 교육, 업무별 유해 위험성 안전교육 등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iBS 생산 공장에서 설비 운영, 직무 교육, 안전 교육 등 다양한 현장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금/금융 지원 중소기업 거래대금은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100% 현금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에 1,500억 원 규모의 SK상생펀드를 조성, 협력사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8개의 협력사가 총 27억 5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07년에 SK에너지를 비롯해 석유화학협회 회장단 5개 사가 함께 조성한 100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플라스틱 상생협력 펀드를 통해 관련 협력사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부터는 기업은행과 협력해 우수 협력사들이 납품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5개의 협력사가 총 58억 원의 자금을 대출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기술 지원 및 공동 기술 개발 협력사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거나 기술 공동 개발, 공동 특허 출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협력사의 창의적인 기술력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역량, 노하우를 결합해 상호 윈-윈하는 동반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정부 규제강화에 대응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9개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국내 토양정화 전문기업들과 공동으로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6가크롬 정화기술 개발에도 함께 참여하여 중국 토양정화시장에 공동 진입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에는 환경부 선정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보유업체 10개사와 '글로벌 환경기술 개발 상생협약' MOU를 체결하여 해외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CLX 설비 유지·보수 협력사의 베트남 BSR사 정기보수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등 협력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지원 협력사가 생산성을 향상시켜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경영 부문에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산CLX에서는 설비유지·보수공사를 담당하는 39개의 주요 협력사를 위해 사무·작업 공간과 교육훈련을 위한 정비동을 건축하여 무상 입주하도록 하였으며, 인천CLX에서도 정비동을 개축하여 협력사의 무상 입주를 지원하고 유지·보수 작업 시 회사에서 보유한 장비를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송 협력사에도 기사 작업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 지원을 위해서는 협력사들이 도급자재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자재관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주요 협력사 CEO 초청 간담회, 수송사 대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야구 관람, 산행 등 아외활동을 비롯하여 체육대회, 가족초청 벚꽃놀이 등 협력사 임직원과 함께 하는 교류행사도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협력사 임직원들이 회사의 '1004 봉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따뜻한 이웃사랑도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생협력 프로그램

인재 육성 지원	자금·금융 지원	기술 지원 및 공동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지원
- SK상생아카데미 - 현장 기술교육	- 현금결제 - SK상생펀드 - 석유화학·플라스틱 상생협력펀드 - 네트워크론	- 기술 지원 - 공동 기술 개발 - 공동 특허 출원 -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시설/장비 무상 지원 - 자재관리 지원 - 협력사 간담회 - 교류행사 - 사회공헌 지원

• 공정한 구매 절차와 체계적인 협력업체 관리

투명한 구매 절차 통합 온라인 구매시스템 'SKBiOK.com'을 통해 공급업체 등록에서부터 구매 요청, 입찰, 발주,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가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급업체 관리원, 구매원, 현업 사용자, 기술평가부서 등 여러 관계자가 구매 절차에 관여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체계적인 SRM 운영 공급업체 관리체계(SRM: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를 도입해 공급업체 등록과 평가, 차별화 관리를 시행, 경쟁력 있는 공급업체 풀(Pool)을 운영합니다. 공급업체 등록과정에서 업체의 윤리성, 신용, 기술, 환경 등 평가항목에 대해 모든 업체가 공정하게 적용, 평가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경영, 기술, 품질, EHS(환경 보건안전) 등의 항목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가 행복하고 조화로운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1- 개발도상국의 지원 및 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 및 온실가스 감축협상에 대비한 국제 협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

2-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선진국(투자주체) 이 개도국(투자대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본사업을 통해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통해 탄소배출권(CER: Certificated Emission Reduction)을 확보하고, 개도국은 기술 및 재정을 지원받음. 2005년 이후 개도국도 투자주체로 CDM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

• CDM 사업 추진

정부로부터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3개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 한-개도국 지원사업'¹을 수주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CDM²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 자원환경부, 태국 온실가스 위원회, 말레이시아 에너지센터 등 현지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국제기구,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미나 및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잠재 CDM 사업 발굴 모색과 바이오가스 등 발굴된 프로젝트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국내외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여 공동 연구분야와 공동 투자사업 발굴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SK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SK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으며 산정 결과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ISO 14064 기준에 따라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천CLX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 지침이 확정되는 시점에 제3자 검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료 사용량 등에 근거하여 SK에너지 내부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별 담당자에 의해 산정되며, 이를 사업장 내부검증 담당부서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향후 추진 방향

2010년 공포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하위법령 제정 등 국가 차원의 감축규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2012년부터 실질적인 감축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에너지 절감 사업 추진과 공정기술 개발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SK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과 CDM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외 탄소 배출권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개도국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직접	6,675	6,483	6,540	6,551	6,752	6,806	7,007	7,305	8,568	8,571
간접	498	612	711	700	756	725	832	967	1,279	1,442
Total	7,173	7,095	7,251	7,251	7,508	7,531	7,839	8,272	9,847	10,013

- 울산CLX 및 인천CLX에 속하는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유업종 특성상 6개 온실가스(CO₂, CH₄, N₂O, HFC, PFC, SF₆)를 CO₂ 값으로 환산하여 산정하였음.

- 2009년 배출량은 내부 산정 데이터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확정 고시 후 정부 지침에 따라 검증 예정

